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시금 등이며,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증에는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확인과정에서 사업주와 산재근로자간 재해발생경위 등을 놓고 다툼이 발생하곤 하였다.

이우룡 고용보험정책관은 "이번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가 직장에서 좀더 편안하게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외국인 산재환자도 치료를 격정하여 귀국을 미루는 일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솔노무사사무소(031-877-752-3)

Q 골프장 캐디, 학습지도사,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A 오는 7월부터 골프장 캐디, 학습지도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노사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난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 적용범위가 4개 직종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면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되는 보험급여 금액은 지급 신청일부터 치유 예상일까지의 예상 치료비와 휴업급여 및 장애보상 일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만을 강조하다 보면 하고 난 후에 허탈감과 공허함이 많이 남고, 생명만을 생각하다보면 사랑과 쾌락을 등한 시키기 때문에 자신의 대한 존중감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듯 성관계를 할 때 사랑, 쾌락, 책임감과 함께 상대에 대한 존중심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진정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성관계를 할 때 상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성 심리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 한 다음에 관계맺음을 한다면 상대에 대해 좀 더 진실한 마음으로 관계를 갖게 될 것이고 이러한 마음을 서로 오고 갈 때 서로가 함께 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Q 제가 아내와 성관계를 가질 때 쾌감이 거의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정도 알뜰 하고요. 처음엔 제가 미숙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도 충분히 애무하고 나서 질이 젖을 무렵에 삽입했는데도 쾌감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 그냥 압박감만 느껴져요. 성행위 중엔 충동이 사로잡혀 그냥 허겁지겁 하는데 막상 쾌감이 없으니가 허무하기도 하고요. 제 성기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A 상담을 하다보면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정을 알뜰 하는 것의 요인을 살펴보면 신체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뇨기과에서 검사

한 결과 신체적인 요인이 없다면 그때에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심리적인 요인은 부부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르가즘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 보면 "성적절정"이라고도 하며 지속적인 성적 자극에 대한 신체적, 사회 심리적 또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쾌감을 동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실제로 자신이 오르가즘을 느꼈는지? 아닌지? 분간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활활경, 극치에 도달, 벽차 오르는 느낌 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관계를 맺고 난 후 "아! 이것이 오르가즘이다"라고 느끼기란 쉽지 않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치과 과장 장우익



은 아말감, 금, 레진, 도자기 등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재료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합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 치료할 치아가 어느 치아인가, 또 그 치아 중에서도 어느 부위인가, 충치의 정도와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충치가 심하여 원래보다 치아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거나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이가 상하여 유치를 너무 일찍 빼게 되면 유치가 빠진 공간으로 주위의 치아들이 움직여서 주위 치열이 흐트러지고 공간이 좁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잇몸 밑에서 자라고 있는 영구치가 솟아오를 공간이 부족해져 제자리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치열이 삐뚤어지고 새로 난 영구치도 충치와 잇몸질환이 잘생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예방에 드는 비용이 치료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덜 든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의: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문의전화: 031-539-9175)

충치관리

우리아이의 정신적 자신감과 육체적 건강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치아 건강 그 중에서도 충치관리에 대해 알아보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아나 어린이의 경우, 특히 유치열이나 혼합치열기(유치와 영구치가 같이 있는 시기)에는 충치가 발생하기 쉬우며 일단 충치가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꾸준한 칫솔질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여 충치 유무를

검사해야 합니다. 진행이 빠른 충치의 경우 검은색보다는 흰색에서 갈색까지 여러 색으로 나타나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집에서 검사로는 발견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염마의 치료시 따라오다가 검사나 한번 해보자하여 구강 검사시 여러 개의 충치를 확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때 염마들은 집에서 볼 때는 충치가 하나도 없었는데 허허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충치가 확인되면 물론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충치를 제거하고 충전하는 재료의 선택은 치과에서 많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충치치료의 재료로 쓰이는 것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포괄근저당의 효력 범위】

저는 1998년 9월 1일 중소기업 주제를 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면서 같은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위 주택에 이미 2천만원에서부터 금 2,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1999년 2월 15일 같은 은행으로부터 금 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주택은 1999년 12월 20일 금 3,8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은행이 기존대출금 외에 신용대출한 금 2,000만원에 대하여도 위 근저당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 근저당권은 원래 증강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피담보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속적 거래관계는 보통 특정

(예: 담보대출계약, 차용금대출 등) 되어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은행에서 관용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그 피담보채무로서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차용금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인원으로 인해 장래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강화상 '포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장래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 설정계약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 이를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약관규제에 관한법률 제5조, 민법 제2조, 제106조, 제357조, 대법원 1997. 5. 28. 96다9508, 1994. 11. 25. 94다8969)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당시의 제반사정 즉, 그 은행간의 피담보채무범위에 대한 구체적 의사, 체결경위 등에 따라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개별·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전·기·상·식

한전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장 신재우



차상위계층 심야전력요금 할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정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심야전력요금을 할인해 드립니다.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자
- 주택용과객중 주거용 시설에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 할인금액: 해당월 심야전력 요금의 18%
- 시행일: '08. 7. 1부터

심야전력 요금을 할인받고자 하시는 차상위계층께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차상위계층 복지확인 신청서(관할 한전 비치)
- 차상위계층 확인서(관할 한전 비치)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제출
- 기타 관할 한전지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방법: 내방(관할 한전지점), 전화, 인터넷(http://cyber.kppower.com/cybe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없이 12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031-539-0257)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주택이라도 사업용으로 임대할 때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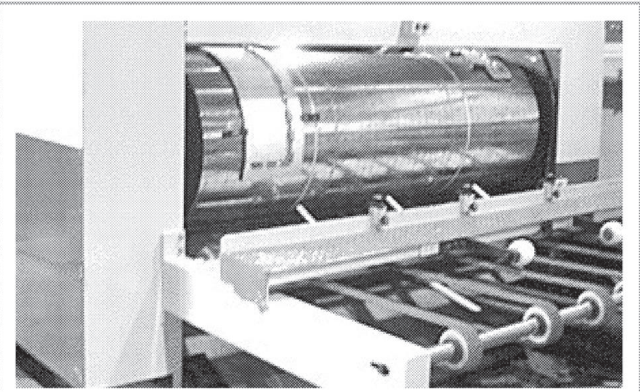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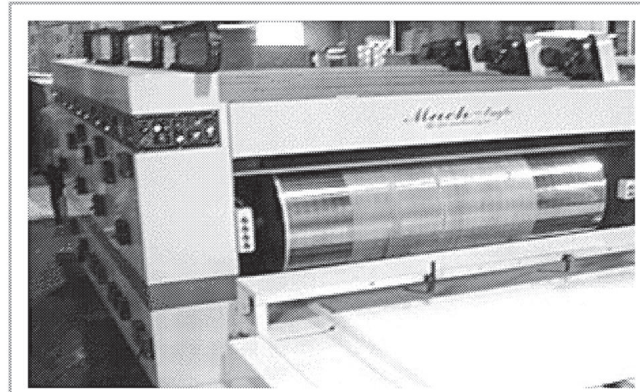
Q 아파트를 신규분양 받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주택임대 소득세 부과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임대소득으로 과세될까? 아니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될까? 임대주택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임대주택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A 세무서에서는 건물기부상 아파트 등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 용도는 외국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하

여 호텔식 서비스로 장·단기 투숙을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 이에 납세자는 국세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을 보면,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현행이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동산 임대소득 및 관리비 징수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관리업으로 사업자격을 하고, 아파트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위탁받은 아파트 등을 인근지역에 소재한 IT업

체 및 외국 바이어 등에게 장기임대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관리비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아파트 평형별로 차등 분배하여 소유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위탁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임대광고 내용에 "외국인 중심의 격조높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요금에 대한 평형별 안내, 입주시간과 퇴거시간이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호텔식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형태인 아파트형 호텔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록 건물이 공부상 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재는 외국인 등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일수에 따라 소정의 요금을 받는 것을 감안할 때 부동산임대업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음.
☎문의: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품질과 신용을 보증하는 골판지 포장 BOX



박스종류

골판지박스, 톱슨박스, 컬러박스, 종이박스

생산품목

내수용, 수출용, 식품용, 공업용, 농산물, 가구 등

1일 생산능력

Carton Box : 100,000매

Inner Box : 100,000매

하루 200,000매 이상

은창 TPS(주)

대표이사 이희선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2리 645-3
Tel. 031)534-5753~6 Fax. 533-5759
www.eunchang.co.kr

